

2008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회년

메시지 5
회년의 근원, 회년 안에서의 기도,
회년의 복들과 회년의 영

성경: 눅 1:78 상; 15:20; 11:1-13; 18:1-8; 24:50-53; 1:46-47

I. 회년의 근원은 “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”—아버지 하나님의 긍휼, 자비, 인자하심이다—눅 1:78 상; 15:20:

- A. “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이/ 우리 위에 떠오르게 했네/ 어둠 안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/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셨네”—찬송가, # 156 장, 2 절.
- B. 자비란 애정을 가진 편 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적인 느낌을 가리킨다—롬 9:15:
 - 1. 자비는 비참함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느낌이다—눅 15:20.
 - 2. 자비는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내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단어들이다. 이것은 아버지의 애정 어린 사랑의 표현이다—1:78 상.
- C.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고,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하신다—딤후 3:5; 롬 2:4; 엡 2:7.
- D.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멀리 도달하는 것으로서, 은혜와 사랑 보다 더 멀리까지 도달한다—4 절; 롬 9:15-16:
 - 1.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—16 절.
 - 2. 어느 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—15 절.
 - 3. 우리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—찬송가, # 22.

II.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는 회년 안에 있는 기도이다—3:21; 5:16; 6:12, 28; 9:18, 29; 11:1-2; 18:1-13; 19:46; 21:36; 22:40, 44-46:

- A.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—3:21; 5:16; 6:12; 9:29.
- B.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—11:2:
 - 1. 진정한 기도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기도이다—엡 6:18; 고전 6:17.
 - 2. 기도의 참 의미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해 들이는 것이다—눅 6:18; 유 20.
 - 3.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접촉이다—요일 5:14-15.
 - 4.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호흡해 들이고, 하나님을 얻고, 하나님에게 얻어진 바 되는 것이다. 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쉬고 들이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를 접촉하게 하고 서로를 얻게 하는 것이다—살전 5:17.
 - 5.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더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진다—엡 3:14-19.
 - 6.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사람이 허락해드리는 것이다—약 5:17.

7.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고,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,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게 허락해 드린다—롬 8:26-27; 약 5:17; 엡 1:16-23; 3:14-21.
 8.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.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가, 우리가 무엇인가,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출한다—눅 9:54-55; 딤후 2:8.
- C. 기도를 지배하는 원칙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—눅 11:1-13:
1. 진정한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—2-4 절.
 2.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,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로서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생명공급을 받는다—11-13 절.
 3.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— 5-10 절; 18:1.
- D. 누가복음 18:1-8 에 묘사된 기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회년과 관련되어 있다:
1. 이 비유에서 의로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되고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과부에 비유된다—2-3, 6.
 2. 우리에게는 대적자인 마귀 사탄이 있는데,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. 이 원수갚음을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—1, 3 절; 비교 계 6:9-10.
 3.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꺾박받는 백성을 위해 어느 것도 하시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, 우리는 귀찮게 하는 과부 즉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—눅 18:3-5; 사 62:6.
 4.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복음 18:1-8 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대로 알아야 한다.
 5.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은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뤄질 것이다. 과부의 믿음처럼 끈질긴 기도를 위한 끈질기고도 주권적인 믿음은 이기는 이들이 승리에 찬 재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왕국 안에서 회년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신성한 요구이다— 8 절; 12:37.

III. 우리는 회년의 복들을 누릴 것이다—1:42, 45, 48, 68; 2:28, 34; 6:20-22, 28; 7:23; 9:16; 10:23; 11:28; 12:37-38, 43; 13:35; 14:14-15; 19:38; 24:30, 50-51:

- A. 주님의 축복은 우리를 양육하며,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, 우리를 만족시킨다—9:16.
- B. 먼저,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복을 누리고,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것이다—24:50-51; 롬 15:29, 13.
- C. 영원한 복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—민 6:23-27; 고후 13:14; 엡 1:4-14.
- D.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, 그리스도인 생활에서, 교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와야 한다—3 절.
- E.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정상적인 교회생활—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회년 안에 있는 생활—은 복된 삶이다—눅 24:50-51; 갈 3:14; 고후 9:6; 롬 15:29.

IV. 우리에게는 회년의 영—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해방된 영—이 필요하다—눅 1:14, 28, 42, 44, 46-48, 58; 2:10, 13; 6:23; 10:17, 20-21; 15:5-7, 9-10, 23-24, 32; 17:11-19; 19:6; 24:52-53.